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실과 초현실사이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조 수 현

# 현실과 초현실사이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조 수 현

# 인준서

조수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예술은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산물로서 인간을 둘러싼 외부의 세계와 내부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다. 본인은 이러한 예술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시각예술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내면세계를 표출함으로써 세상과의 타협점을 찾고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시각적 표현은 자아로부터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자아의 일반적인 개념과 미술에서의 자아표현을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자아표현 방법도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형성과정임을 서술하였다. 또한 미술을 통한 표출은 현실에서 느끼는 갈등을 극복하고 내면을 치유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회복시킨다는 점을 말하였다. 그럼으로써 자아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연결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서는 자아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재의 선택과 의미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근간을 두었고 일상의 오브제를 상징화하였음을 서술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본인의 작품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공간에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일상의 공간과 오브제들을 결합하여 상상적 공간을 표현한 본인의 작품과 일상의 사물을 낮설게 함으로써 초현실적인 효과를 얻게 하는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을 비교하여 본인 작품의 조형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 구성에서 여백의 의미와 표현에 대해 설명하

고, 내면을 반영한 색채의 상징적인 의미와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에피소드와 내용 및 형식을 중심으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인간은 삶을 보다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 미술이라는 도구를 적절하게 이용해 왔다. 미술이 나타내는 정신, 의식, 관념은 모두 실재하는 것들로 인간의 삶의 법칙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존재의 흔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은 인간의 심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내면의 숨겨진 존재까지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보이지 않는 자아의 흔적을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찾고자 하였고,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작품으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내용적 분석	3
1) 시각적 표현과 자아탐구	3
2) 표출을 통한 치유와 소통	7
3) 자아가 꿈꾸는 이상세계	9
4) 소재 선택의 의미와 표현	11
(1) 성경을 통한 자아의 형상화	11
(2) 일상의 오브제와 상징	12
(3) 빼에로 이미지	14
2. 조형적 측면의 고찰	17
1) 평면적 공간과 입체적 사물의 결합	17
2) 비움의 표현과 의미	21
3) 색채	22
3. 작품 분석	26
III. 결론	48

참고문헌

참고도판

ABSTRACT

# I. 서론

예술은 인간의 궁극적 존재와 정신을 반영한다.

예술의 기원을 살펴보면 미적인 동기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이나 주술적인 표현 등으로 예술은 시작이 되었고,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형상화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생각들을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표출하였다. 그러므로 예술은 인간 내면에 숨겨진 욕구를 표출시키고 해소시키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예술은 은밀하면서도 깊이 있게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표출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 욕구를 해소하고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예술이 인간 정신을 반영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근거로 보았을 때 본인에게 있어서 시각예술, 즉 미술이라는 것은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을 표출하며, 밝고 긍정적인 삶을 위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임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본인의 작품은 자아가 꿈꾸는 이상적 세계를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소재들 간에 초현실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본인의 작품을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1장에서는 먼저 자아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자아와 미술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인간은 누구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본인은 그것을 미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얻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미술은 내면을 토로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내면 본성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여기서 미술의 치유적 힘에 관해 언급할 수 있는데, 미술을 통해 자아는 일탈을 꿈꾸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본인 뿐 아니라 감상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술가와 감상자 사이의 공감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는 자아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작 동기를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소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성경 내용을 근거로 했다는 점과 일상적 소재들과 본인의 이미지를 상징화시켜서 표현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미술과 자아 표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조형적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평면적 공간과 입체적 사물의 결합을 통해 초현실적 공간을 표현하여 현실세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을 형상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본인의 작품과 마그리트의 표현방법과 비교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에서의 비움의 공간이 갖는 의미를 언급하고 비움과 자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며 색채의 상징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이미지의 형상화와 내용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본인 작품 11점의 제작 동기와 내용 및 표현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내용적 분석

#### 1) 시각적 표현과 자아탐구

인간의 모든 행동 방식은 자신의 관심과 가치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의 출발 또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을 탐색하고 타인과 구분 짓는다.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보통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규정지어진 자아의 주체적인 움직임인 것이다.

자아(自我)란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 행위의 주체이며 체험 내용이 변화해도 동일성을 지속하여 작용, 반응, 체험, 사고, 의욕의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sup>1)</sup> 즉 ‘나’를 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현실세계의 실존적 존재로서 그 본성 자체가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으면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존재의 뿌리를 찾기 위해 열정을 다한다.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자아에 대한 주제는 철학자들에 의해 많이 고민되고 정의되어 왔는데,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399)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자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철학에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에 의해

1) 자아(自我): <http://krdic.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이루어지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의 존재의 확실성은 ‘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구체적 사유 활동을 통해서 확보된다. 한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자아이론에서 자아는 ‘선행적’ 자아이다. 이것은 데카르트의 이론과 유사한 법칙으로 인간의 어떠한 의식도 의식으로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I think, I feel, I want”의 선행적 자아의 형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자아이론에서 자아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변증의 운동으로 생성되어지는 것이지 칸트처럼 경험 이전에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sup>2)</sup> 또한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자아는 존재하는 타자를 통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신과 타인이 이루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즉 자아의 주체성 또는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자아에 대한 정의는 어떠한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다. 왜냐하면 경험적 자아는 인간의 삶의 자아이고, 인간의 삶의 자아는 선행적 자아로부터 논리적 연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자신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자아의 일반적인 정의로 본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자아는 자신이 자각하는 나와 자각하지 못하는 나의 결합으로 내면과 외면의 여러 기질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자아는 완성된 개체가 아닌 완성되어지는 개체로써 누구도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아의 정체성을 찾는데 갈급해하며,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방식은 각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본인이 자아를 확립하는

2) 윤현섭, 「추상미술과 지(知)의 자아」, 인간사랑, 1997, p.56-57

방식은 미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창작자의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예술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식하여 더 발전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예술의 형식을 빌려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예술은 사물의 현상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현상 속에 가려진 내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직접, 간접 경험을 의식 속에 승화시켜 잠재된 자아를 깨우고 일상의 편견을 넘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현대미술은 교회나 부르주아에게 봉사하는 미술이 아니라, 예술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주체적 예술이다. 예술가의 개인적 의식이 우선하는 예술이며, 예술가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신이 표현되는 예술이다. 따라서 그러한 예술은 인간 정신의 본질, 자아의 표현을 예술의 주제로 한다.<sup>3)</sup> 작품을 통해 자아를 표현한 방법은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작가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의 경우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작업을 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도판1) 많은 자화상을 남긴 에곤 쉴레(Egon Schiele, 1890~1918)는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자신의 인체를 왜곡하거나 일부를 변경해서 표현함으로써 자아의 반영임과 동시에 가치관의 혼돈에 관한 저항 심리를 나타내었다.(도판2)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일그러진 자화상을 통해 낯선 자아를 대면시킴으로써 보는 이에게 충격은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조용히 충고하고 있다.(도판3) 한편 발투스(Balthus, 1908~2001)의 경우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소녀의 형상 안에 그 자신을 투영시켜서 자아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는 화면 전체에 자신을 표현하였는데, 화면 안의 색조, 질감을 비롯하여 정지된 화면 연출, 연극 무대적인 요소들의 도입, 한 화면에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공존시킨 화면, 이국적인 요소의 표현 등으로 개인적 고백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그의 성장

---

3) 윤현섭, 앞의 책, p.32

배경과 관심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도판4)

클레(Paul Klee, 1879~1940)는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화의 힘이다.”라고 했다. 본인은 이러한 시각예술의 힘이 인간의 삶에 무수한 영향을 끼치고 본인에게도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술적 행위는 우리의 일상에서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거나 잊혀진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며, 그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아의 모습은 한 인간의 역사와 존재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일종의 지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가에 의해 표현된 이미지는 그것을 구성하는 획 하나, 터치 하나, 손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이미지란 그것을 낳게 되는 모든 창조행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굳어진 채 남은 흔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sup>5)</sup> 그러므로써 예술가는 자신과 함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 속에서 또는 예술가 자신 속에서 그들 각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관계를 맺는 것일까?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때문에 자아를 연구하고 이미지로 표출하는 것은 예술가 자신은 물론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본인도 그것을 추구하는 바이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내면의 숨겨진 감정들을 토로하고 비가시적인 정신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자아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며 삶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리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나 사고 및 행동방식, 취미, 취향, 습관 등을 중심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그것을 이루는 환경과 연결시키며 이미지화하였다. 탐색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자아의 이미지를

4) 이지영, 「발투스(Balthus:1908-2001)의 “소녀상”에 표현된 자기반영성(自己反影性)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p.92

5) 르네위그,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79, p.34

만들고, 그것은 다시 탐색되어지고 자아가 형성되는 반복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이 계속되는 이상 내면의 반영을 통한 자아탐구는 무한궤도에 놓여있는 것이다.

## 2) 표출을 통한 치유와 소통

예술의 표현은 인간의 체험과 내면 의식을 반영하고 정신을 표출하는 감정의 행위라고 앞서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예술이란 마음을 물질화시키는 일, 마음을 물질적 질서 속에 구현해 놓는 일, 다시 말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예술적 형상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 예술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근거는 이미지와 마음과 물질이 서로 조응한다는 전체에서일 것이다.<sup>6)</sup> 예술 활동을 통해 인간은 자기모순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더 나은 자아로 성장한다. 그것은 비단 창작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형태로든 예술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가능한 것이다. 즉 예술로의 표출은 간접적으로도 경험이 가능하며, 그것은 심상에 작용함으로써 소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가의 문제가 더 이상은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도 되는 것이다. 이 때 예술가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그것을 극복한다면 예술을 경험하는 이도 동일한 쾌감을 얻을 것이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고독, 소외감, 분노, 열등의식, 무력감, 불안 등의 갈등에 부딪히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압력을 주고 우리의 의식을 상관하게 된다.<sup>7)</sup>

---

6) 김용희, 「예술·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0, p.99

7) 오영임, 「창작행위를 통한 심리적 자가 치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p.vi

하지만 인간이 어떠한 도구도 없이 갈등을 스스로 통제하고 치유하며 회복하기엔 그 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술이라는 감성의 도구를 통해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과거 중세시대의 예술은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수단이었다면 시대가 지날수록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써 삶과 직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술, 특히 미술은 인간 삶의 반영이며 표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 정신의 실재적인 부분과 마주하며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술이 치유적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술치료라는 분야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세계를 향해 열린 체계라는 미술의 특성 때문에 미술은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 사이의 매개가 되며, 개체와 장(場)의 교류를 통해 삶의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고, 치유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sup>8)</sup>

인간은 꿈과 현실, 선과 악, 의식과 무의식, 물질과 정신, 그리고 내용과 형식의 구조 안에서 일탈을 시도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불안정한 정체감에 휩싸여 있을 때 안정과 평안으로의 갈급함 때문이다. 일탈의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만족감은 물론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긍정적 만족감과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시각예술, 즉 미술이라는 것이다. 본인에게도 일탈의 행위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 바로 미술이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실존적 자아와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미술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고 작가의 영혼이 깃들어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미술 작품을 만들거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감상하는 사람은 미술작품에 자신을 대입해봄으로써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있던 감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얻게 된다.

본인은 작품 안에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삶에서 느꼈던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현실세계에서 깨달았던 진리를 표현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과 현실세계와의 괴리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스

8) 하세경, 「현대 미술에서 만나는 미술의 치유적 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p.16

스로를 치유하고 있는지를 이미지로 담는다. 그것은 [작품5]의 뼈대로 모습에서와 같이 마음껏 그리고 영원히 웃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작품8]에 서처럼 내면을 상징한 오브제들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추구하는 미술은 일탈을 꿈꾸고 지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작품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인간이 모두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분명 그 안에서 공통분모로 엮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앞서서 여러 번 주장했던 미술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이고 그래서 본인은 작품을 통해 타인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작품 활동을 통해 얻은 자유함이 그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소통이 이뤄지는 가운데에서 본인의 작품은 더 이상 본인의 것만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 3) 자아가 꿈꾸는 이상세계

자아가 가지는 특성이 한 개인에게서 지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에서의 ‘정체성(identity)’ 또는 ‘자아정체성(self-identity)’으로 표현된다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각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사이버 상에서의 아바타(avatar)<sup>9)</sup> 놀이 공간을 활용한 것이다. 아바타의 활용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표현의 방식이며 나아가 자아정체성 발현의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비록 모니터 앞에 앉아 마우스나 키보드로 아바타를 움직이고 있지

---

9) 아바타 (avatar) : 인터넷 가상공간이나 가상현실 게임 등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치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진이나 그림, 3차원 영상 등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바타는 고대 인도에서 신의 화신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유니콘, 파랑새, 사이버 인형, 기타 신비적이고 창조적인 화신들이 사용자를 대신하는 일종의 자기 상징 캐릭터로 사용된다.

만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아바타에게 나의 움직임이 곧 아바타의 움직임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아바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또 하나의 나. 말 그대로 분신이 된다.<sup>10)</sup>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바타는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리만족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가상의 공간이 현실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사이버상의 아바타 놀이공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인이 작품에서 표현하려는 것은 자아가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써, 이 세계는 완전히 현실에서 벗어난 세계가 아니라 아바타 놀이공간처럼 일상을 담고 있는 가상의 공간인 것이다. 그리하여 아바타가 존재하는 세상이 현실을 축소하듯 담아낸 것처럼 본인의 작품도 일상의 이미지를 끌어들이 편집하고 구성하여 자아의 심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세상을 시각적으로 연출한 것이다.

본인이 이러한 이상적 세계를 표현하게 된 것은 현실에서의 내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본인은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문득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느낌이 들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고,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였고 날마다 일탈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아가 원하는 세상을 상상하고 마음에 그려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면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시도를 해 봄으로써 지금의 작품 이미지를 만들게 된 것이다. 본인이 표현한 이상세계의 이미지는 자아의 순수한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동화 속의 이미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거나 즐겨보았던 영화나 만화, 동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동화나 만화 속의 세상

---

10) 권효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바타를 통한 자아정체성 고찰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제17집, 2006, p.123

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고 그 때문에 즐거운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본인은 영화 '후크'에 나오는 네버랜드를 많이 떠올리고는 했는데, 그곳은 현실과는 다르게 늘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지켜지는 세상이며 본인의 꿈꾸는 곳과도 닮아있는 세상이다.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문을 나설 때마다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본인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이기를 꿈꾸기도 했다. 그리고 동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엘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가게 된 세상은 무엇이든지 가능할만한 엉뚱한 세계를 떠올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이상세계가 작품을 통해 현실화되었으며 사이버상의 아바타 놀이 공간보다 구체적인 자아표현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상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인은 자아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표현함으로써 미술을 통해 얻고자 했던 자아발견과 내면의 표출, 치유와 소통 등 본인의 바램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었다.

#### 4) 소재 선택의 의미와 표현

##### (1) 성경을 통한 자아의 형상화

본인은 작품의 소재를 일상의 이미지에서 찾으며 자아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표현한다. 이미지의 차용 전에는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서적에서 영감을 얻으며 그것에 의해 전체 작품의 분위기가 결정된다. 어쩌면 본인이 작품을 하는 행위가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메시지의 전달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자아를 이루는 부분이기에는 내면의 반영이고 실제적인 표현인 것이다.

본인은 성경을 통해 영감을 얻고 작품으로 표현을 하지만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목적은 자아를 탐구하고 내면을 표출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의 깊숙한 부분, 즉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아를 찾기 위한 시작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자아의 내면에 꿈꾸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형상화하였다. 초반에는 주로 구약성서의 시편을 참고하였는데, 시편의 표현들은 의미와 심상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글로써 본인의 심상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아의 심정을 대변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아는 비로소 자유에 이르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작품5]는 시편 23:1-2절<sup>11)</sup>의 내용을 인용한 작품인데 내적인 자유를 얻은 자아의 모습을 공간과 대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 작품은 성경을 묵상하고 표현한 초기 작품이라서 내용이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후의 작품들은 [작품5]처럼 인용구를 그대로 이미지화하지는 않았으며, 묵상을 통해 자아의 내면에 반영이 되어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즉 [작품8]은 순종에 관한 말씀을 묵상한 뒤에 자아의 영적인 고민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작품의 내용을 성경 말씀에 근거로 두는 까닭은 그 안에서만이 자아가 내면을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아의 소망과 비전(vision)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자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일깨워주며 작품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 (2) 일상의 오브제와 상징

본인의 작품 이미지는 일상의 오브제를 상징화시키고, 이야기를 상상할 수

1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구약 시편, 개역한글, p.817

있는 구도로 연출된다. 일상의 오브제를 차용하게 된 것은 현실의 삶과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감상자와의 소통을 위한 소재로 가장 적절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일상의 오브제들은 본래의 의미 이외의 것까지도 포함하게 되며 아주 주관적인 대상으로 전이될 수 있다.

미술에서는 욕망의 대상을 직접적이면서 또한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상징을 통한 방법을 사용한다.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이미지를 차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미지는 단순히 사물의 재현적 모방이 아닌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상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가시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이 억압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것을 감출 수도 있다. 이는 상징의 이중적인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본인 또한 일상의 단면이 그대로 나타나는 오브제 속에 본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럼으로써 일상의 오브제들은 더 이상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상징물이 되는 것이다. 즉 본인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비밀스러운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작가의 생각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감상자가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열린 가능성을 주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일상의 오브제는 자아의 상징물이 되어 표출 욕구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며, 개인적인 만족감에서 끝나는 미술작품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 표현된 상징물로 계단이나 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단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통로로써 상승적인 의미를 띄며 진보나 발전을 가리킨다. 이와 유사하게 본인 작품의 계단은 다른 차원의 세계, 즉 이상세계로 가는 통로의 의미로 현실보다 나은 세상이라는 기대감의 상승적인 구도로 나타난다. 한편 일상에서 길은 과정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삶의 여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의 길 또한 마찬가지로

로 자아가 걸어왔던, 그리고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의 이상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의 하늘은 이상적인 꿈의 공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맞물린다. 또한 다른 공간과 결합하여 영똥한 상황을 만들거나 이중적인 의미를 띄기도 한다.

[작품6]에서는 하늘이 곧 바다가 되어 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현실의 세상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자아의 이상적인 세계의 표현을 위한 형식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 밖에 주로 표현되는 오브제로는 의자나 신발 등이 있는데, 의자는 내면의 안정과 평안, 휴식을 상징한 것으로 자아가 꿈꾸는 이상세계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발은 벗어버리고 싶은 일상의 족쇄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작품에서 신발은 벗어진 채 공간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작품1]에서의 신발은 라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탈을 시도한 자아에게 더 이상 일상의 물건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 작품에서 표현된 오브제들은 일반적인 의미와 주관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으며 이것은 배경과 사물이 영똥하게 만남으로써 새로운 의미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므로 오브제의 상징적인 의미는 작품 전체의 내용과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 (3) 빼에로 이미지

작품에 상징화된 이미지 중에 빼에로로 변신한 본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본인이 직접 분장하여 찍은 얼굴 사진을 참고로 하여 그린 것으로 어린 아이의 몸을 가지고 있다. 마치 피터팬 증후군<sup>12)</sup>과 비슷하게 어른이

12) 피터팬 증후군 (Peter Pan syndrome) : 성년이 되어도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군. 약칭 PPS. 피터팬신드롬이라고도 한다. J.M. 베리의 동화극 《피터팬》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이 나

되기 싫어했던 과거의 기억과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탈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또한 실제의 얼굴이 아니라 분장으로 가림으로써 익명성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마음속의 이중적인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본인은 때때로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겉과 속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을 한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마음을 결정하고 자신의 속마음은 감춘다. 그러나 본인은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내면의 감정들을 내뽐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분장한 뺨에로의 모습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뺨에로가 필요할 것이며,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 될 수 있는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또 다른 자아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5] 에서 웃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뺨에로의 표정에는 자유와 해방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꿈의 공간과 현실의 다름에 대한 씩씩함도 숨겨져 있다. 여기에서 분장한 뺨에로의 모습 속에 내면의 여러 가지 감정과 심리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뺨에로를 바라보는 이들 또한 그 안에 자신을 얼마든지 투영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익명성이 보장 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도 주목받기 싫어하는 그 자신의 특성을 중산모를 쓴 남자의 익명성에 반영하였다.(도판5) 그는 경력이나 스타일 없이 살고자 하였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별 특징 없이 평범한 중산모를 쓴 남자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중산모를 쓴 남자의 일반적인 모습은 그의 숨겨진 가치 기준을 보여 주면서 인물 집단을 표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투영하는 완벽한 매개물인 것이다.<sup>13)</sup>

---

타내는 마음의 증후군을 임상심리학자 D. 카알리가 피터팬증후군이라 하였다. PPS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저학년대에 해당하는 전사춘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각 발달단계에 따라 기본증상을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려서는 자신감 결여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싫어하는 데서 시작하여, 30대 사회인이 되어서는 무기력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자신에게도 싫증을 내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피터팬증후군이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으로는 가정의 불안정, 학교교육 및 가정교육의 기능 저하, 페미니즘 정착으로 인한 여성들의 자립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13) 수지개블럭, 「르네 마그리트」, 시공사, 2000, p.167,174

마그리트에게 중산모를 쓴 남자가 그 자신을 상징하면서도 집단을 표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술 작품의 많은 부분에서 작가 자신이 투영된 세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작품에서 유일한 주인공인 뻘에로는 내면의 자아와 타인의 자아가 공존해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으며 숨겨진 자아의 본색을 드러내게 해주는 내면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된 모든 이미지들은 현실을 차용한 상상된 이미지들이고 실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이다. 이것은 상상으로 그치고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과 그 미래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가능성 있는 현실세계를 갈망하는 자아를 모두에게 보여줌으로써 내면과 현실, 그리고 현실과 또 다른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고자 한다.

## 2. 조형적 측면의 고찰

### 1) 평면적 공간과 입체적 사물의 결합

인간은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공간은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간이란 물질적인 존재 말고도 이론, 마음, 꿈 등 형이상학적 존재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관념적인 것이 존재하는 장소는 때로는 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비물리적인 공간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간은 ‘존재(存在)’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말한다.<sup>14)</sup>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간 매체로서 인류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성된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인류 문화에 있어서 공간의 표현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술의 본질은 효과를 내도록 꾸며진 물리체에 지탱하여, 감각적 질(質)의 조화로운 놀이라는 유일한 수단으로, 예술이 보여주는 사물과 존재의 세계를 지시하면서, 초월에 대한 인상을 향해 우리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sup>15)</sup> 그것은 곧 현실세계의 공간과 관념속의 이상적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본인은 평면의 캔버스 위에 보이지 않는 현실세계의 공간을 표현하였다. 이 공간은 상상에 의해 형상화된 공간으로써 보이지 않는 자아의 내면이 반영된 정신세계로의 개념적 공간을 의미한다. 상상에 의해 펼쳐진 이 공간은 현실세계의 이미지들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의 오브제들이 결합되어 비현실 세계의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특히 안과 밖의 구분이 모호하여 마치 동화 속에서 가능한 장면이 연출이 된다. [작품2] 에서 볼 수 있듯이 실내와 실

---

14) 배은숙, 「일상적 공간 속에서의 자아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p.6

15) 진중권, 「미학오디세이2」, 휴머니스트, 2003, p.93

외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같은 공간에 놓여 있고, 이 공간 또한 현실세계와 닮았지만 다른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작품8]에서의 오브제들은 모두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배경의 하늘은 이 공간이 안인지 밖인지 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일상의 오브제나 환경을 초현실적 공간으로 재구성한 본인의 방법은 마그리트의 표현방법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마그리트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사물들을 낯설게 함으로써, 특유의 초현실주의적 효과를 얻어낸다.<sup>16)</sup> 마그리트는 평소 익숙했던 사물들의 위치를 전환시켜 엉뚱한 다른 요소들과 결합시키거나, 사물과 말 사이의 엉뚱한 조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재현체계, 의사소통의 체계를 거부하고 말과 사물, 언어와 사고 사이의 의미 관계의 전복을 꾀했던 것이다. 그는 일상의 사물들을 형상화하는 면에 있어서 정확하고 사실적인 기법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는 대상을 주관에 따라서 변형,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데페이즈망 효과를 통해 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데페이즈망이란 현실적 사물들을 대상으로 그 본래의 용도, 기능, 의미를 현실적 문맥에서 이탈시켜 그것이 놓일 수 없는 낯선 장소에 조합시킴으로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해내는 기법이다. 일종의 전위법, 혹은 전치법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기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사물이 본래의 일상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전혀 다른 의미와 느낌으로 환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기법은 현실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현실세계를 상상하고 이미지화하는데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내적 자아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세상과의 결합을 위한 상징으로 내부와 외부의 공간이 한 화면

---

16) 진중권, 앞의 책, p.250

17) 우정윤, 「초현실주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2, p.17, 재인용

에 표현되어져야 했는데, 마그리트의 표현방법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완벽한 허상임을 제시하고 우리의 인식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표절>이라는 작품에서 탁자위의 꽃다발 속의 꽃들은 나무로 가득 찬 풀밭으로 대체되어 일반적으로 따로따로 경험되는 사건이 동시 발생한다.(도판6) 즉 정신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일이 동시에 발생하듯이 실내와 실외가 일치되는 것이다.<sup>18)</sup> 본인의 [작품6]은 (도판6)과 유사하게 표현되었는데, 하늘은 바다가 되기도 하고 육조 안의 물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본인이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와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그리트의 <개인적 가치>에서는 화장대와 침실이 하나로 응축되어있다. 벽은 푸른 하늘이 되어 버리고, 공간에 구성된 사물들은 그 크기에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이 또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과 유사하며, 이것은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버리는 동시에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도판7)

마그리트가 현실 안에서 숨겨진 세계를 밝혀보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본인 또한 보이지 않는 삶의 진리를 현실세계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미 지각하고 있는 경험적 이미지를 뒤엎어 낯설지만 익숙한 공간으로 표현하고, 엉뚱한 어울림 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자아의 정신적인 일탈을 나타낸 것이다. 본인의 [작품3]에서 보면 평면의 공간위에 입체적으로 표현된 사물들이 놓여 있다. 평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배경 공간은 실외의 풍경을 담고 있지만 어떤 사실적이 묘사는 없이 상징적으로 단순하게 표현된다. 이것은 공간 자체의 의미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어떤 공간인지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평면과 입체의 결합이 주는 이질적이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통해 상상의 공간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중위에 떠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공

18) 수지개블럭, 「르네 마그리트」, 시공사, 2000, p.96

간위의 사물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조화를 이루며 안정된 구도로 되어 있다. 각 각의 사물들은 화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 움직임 없이 놓여있는데, 이 사물들은 배경과는 달리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어울려 있는 것이다. 사물들은 주로 배경과 상관없는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며, 배경에 비해서는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보다는 굉장히 단순화 시켜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도판7)에서처럼 본인의 [작품7]에서도 사물의 크기를 원래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함으로써 대상물 간의 비교를 통해 초현실적 공간이 쉽게 읽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상의 사물이 배경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로써의 기능을 가질 뿐 재현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이 표현한 초현실적인 꿈의 공간은 그저 상상이나 환상의 이미지에서 그치는 곳이 아니라 그 공간의 구석 구석에 묻어있는 자아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실제의 장소인 것이다. 그 세계에는 분명 현실이 반영되어 있고, 현실을 볼 수 있다. 마그리트에 따르면 본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행위라고 한다. “눈앞에 있는 사물이 그것이 보여주는 것에 의하여 감추어져서 안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절을 보지 못한 채 누군가가 모자를 벗어서 인사하는 것만을 볼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만 감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 그 너머에 또 다른 현실세계가 있고,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며, 보이던 보이지 않던 이 세계는 모두 하나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본인은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

19) 수지개블럭, 앞의 책, p.12

## 2) 비움의 표현과 의미

고대 동양인들은 예술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존재 가치로서의 자연을 숭배하였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였으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고, 자연과의 합일함으로 우주의 관대함을 담으려 하였다. 이는 작품에서 여백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가능해졌다. 여백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공간이지만 형체 표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그려진 것 이상의 조형적 가치를 이룬다.<sup>20)</sup> 즉 여백은 형상이 주는 의미를 더 깊게 바라보게 하며,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상자로 하여금 마음의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여백이 주는 시각적 힘은 대단한 것이다.

한편 본인 작품에서의 여백은 사유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형상과 대치되면서 형상이 돋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이때 여백은 이미지의 배경 공간과 같이 평면적으로 채색되는데, 어떤 묘사도 없이 그 표면의 두께가 일정하도록 퍼 발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용된 물감의 특성에 의한 것도 있지만 표면의 어떠한 효과도 배제시켜 감정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통제한 것이다. 때문에 본인 작품의 여백은 다른 이미지들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본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상세계에 대한 환상적인 느낌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써 감상자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상자가 형상을 인식하고 상징적 의미에 대해 생각할 동안 그 내면은 여백의 고요한 울림으로 인해 안식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백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인 작품의 여백은 표현된 공간 이외의 부분으로 보통 전체화면의 1/3정

20) 이경임, 「샘 프란시스(Sam Francis)회화의 여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4, p.33

도나 그 이하로 구성된다. [작품2~7]에서는 하늘이 들어갈 위치가 여백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때 여백은 형상에 집중을 하도록 하면서 초현실적인 공간의 시각적 효과를 더하도록 한다. 또한 [작품1]에서는 표현된 공간 자체가 여백과 구분이 모호하여 그 공간을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뼈에로의 머리카락, 신발, 계단 등 다른 이미지들과의 완벽한 색상대비 효과로 가상의 공간임이 확실히 인식하게 한다. 반면에 [작품10]에서는 여백의 부분이 하늘로 채워지고 형상이 일부 비워져 있다. 여기에서의 여백은 하늘이 아니라 선으로 표현된 부분이다. 이 작품의 여백은 매우 적은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형상을 드러내는데 효과를 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화면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공허한 느낌을 더해 준다.

본인 작품에서의 여백은 분명히 철학적이거나 사유의 공간으로써의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백의 시각적 효과 및 영향력은 물론 내면 감성을 전달하는 의미로써 화면의 비움을 선택한 것이다. 비움이란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채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백 안에 내면의 깊은 소리까지도 고스란히 채워 넣고 그것을 조금씩만 꺼내보이고자 하였다. 이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이 자아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더욱 실재적으로 인식하고 그 내면의 세계까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 3) 색채

작품을 미적으로 평가할 때 빠질 수 없는 조형요소 중에 색채(color)를 들 수 있다. 색채는 다른 조형요소들과 결합하면서 대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감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인간 정서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색채는 인간의 감각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합리적인 사고가 설명

해주지 못하는 것까지 전달함으로써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색채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은 미술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서 볼 수 있는데, 신분이나 계급의 구분이 되기도 하며 방위의 표시, 지역의 구분, 사물의 식별화, 주의 표시, 국가나 기업 또는 단체의 상징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미술에서의 색채는 약속 언어로서의 기능보다는 사물을 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색채를 사용하는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색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했던 작가로는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가 있는데, 그는 격정적인 색선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표출하였다.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는 현실의 해바라기보다 훨씬 노랗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고흐의 심경이 노란 감정으로 물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는 현실의 재현보다는 주관적인 색채를 구사해냄으로써 회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작가 내면의 표현을 완성해나갈 수 있었다.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채를 부정하고 전통적인 방법에서 이탈하여 자신이 부여하고자 하는 색으로 대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색채는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언어 중에 하나인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색채는 채도가 높은 편이고 원색적인 경향을 띤다. 고흐나 마티스와 같이 완전히 주관적인 색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사용한 색채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색채의 의미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바라는 세계에 대한 반영이며 자아의 기본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는 본인이 표현하려는 대상 고유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 긍정적이며 가능성을 담고자 하였다. 주로 하늘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색이 표현되었으며 그밖에 심리적 욕구를 반영한 무지개 색상의 원색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여백 부분의 흰색은 그 공간의 의미와 흰색의 상징적 의미가 일치되어 표현된 것

이다. [작품2] 에서와 같이 흰색은 오브제가 놓인 공간 이외의 부분에 사용을 했는데 이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 것이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흰색은 물질적인 성질이나 실체로서 모든 색들이 사라진 세계의 상징과 같다. 이 세계는 우리들로부터 너무 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런 음향도 들을 수 없다. 거기에는 커다란 침묵이 흐른다.”<sup>21)</sup>라고 했으며 또한 그 침묵은 죽은 것이 아닌 가능성으로 차 있는 침묵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흰색은 내면의 고요한 상태를 담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세계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마음을 비우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흰색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비움의 의미와 가장 적합한 색채라고 할 수 있다.

연두색 계열은 [작품2~7] 에서처럼 공간의 배경부분에 많이 표현되었는데, 연두색은 풀밭이나 식물들의 공간 등 대부분 자연을 연상하게 한다. 이에 본인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미지를 떠올린 것이지만 더욱 구체적인 이유는 연두색이 심리적 안정을 주는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색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는 긍정적인 자아로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으므로 우리가 자연을 보며 안정과 휴식을 느끼는 것처럼 본인의 작품도 색채를 통해 그러한 감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삐에로의 머리는 [작품1] 과 같이 무지개 빛깔의 원색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자아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일탈을 꿈꾸며 현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 자아의 충동을 해결해준다. 또한 내면에 존재하는 자아의 다양한 성향을 무지개의 색으로 표현하였는데, 일곱 개의 색이 모여서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내면에 흩어진 모습들이 모여 자아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지개 빛깔의 색은 자아의 심리를 표출하는 색

21)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2004, p.94

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화면의 분위기를 경쾌하게 해주어 형식적인 면에서 재미를 더 해준다. 그 밖에 일상 사물에 표현된 색채는 그 사물이 가지는 고유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밝은 분위기를 주면서도 배경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전체 분위기에 맞게 조절하여 표현했다.

작품에 표현된 색채가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색채들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작가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칸딘스키는 그의 저서에서 “색은 피아노 건반이고, 눈은 줄을 때리는 망치이며, 영혼은 여러 개의 선율을 가진 피아노인 것이다. 또한 예술가들은 인간 영혼에 진동을 일으키는 건반을 두드리는 손과 같다”라고 하였다. 즉 색채의 조화는 영혼을 함목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법칙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본인도 색채의 어울림이 주는 영향력을 근거로 하여 본인 및 감상자의 영혼을 움직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인 작품에서의 색채는 다른 조형요소와 다른 색채들과의 조화 속에서만 내면의 반영과 표출을 피하고 감성의 나눔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 3. 작품 분석



[작품1]

<D-day> oil on canvas 112.1x145.5cm 2006

### [작품1] D-Day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현실 공간에서의 모든 것들은 잠깐 미뤄두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습을 되찾아가며 여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계단 너머의 세상은 지금의 세계와는 다를 것만 같고, 자아가 꿈꾸는 현실이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작품의 제목인 D-Day는 고대하던 날이 현실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기대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무지개 빛깔의 머리로 단장을 하여 또 다른 자아상을 표출하고 현실에서의 일탈을 매우 경쾌하게 풀어내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자아가 주인공이므로 무엇보다 빼여로를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 일탈에 대한 굳은 의지로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뒷모습이 머리칼만 조금 보이고 나머지는 숨겨졌는데, 이것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의 확장을 의도한 표현이다.

현실의 공간을 하얀 화면으로 표현한 것은 현실세계가 잠시 정지된 상태로써 자아의 움직임만이 포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흰색이 침묵 속에서의 또 다른 가능성이라면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현실세계로의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 가능성의 표현은 흰색의 공간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다른 공간과 이어진다는 암시적인 표현이다.

계단 앞에 놓인 오브제들은 신발과 물감으로 형체가 거의 사라지고 윤곽선만 남아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 본인이 일상에서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모험을 택하겠다는 자아의 의지를 대변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선으로만 그려서 일상에 대한 흔적만 표현한 것이다.



[작품2]

<네버랜드를 찾아서 III> Acrylic on canvas 97.0x145.5cm 2007

### [작품2] 네버랜드를 찾아서 Ⅲ

자아는 일상에서 멀어져 새로운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일상의 오브제들이 눈앞에 있지만 이곳은 그동안 살아온 현실과는 다른 세계이다. 현실과는 닮아있지만 낯선 곳처럼 느껴지며 한편으로는 설렘과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곳이다. 이 작품은 모험을 하고 싶지만 이내 곧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소극적이면서도 모순된 모습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고 싶은데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 선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있는 것이다. 본인은 원래 모험을 즐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늘 도전하고 모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현실에서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이곳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삶을 살다보면 때로는 큰 모험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데, 본인은 작품 속 현실세계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일상의 오브제는 안과 밖에서 볼 수 있는 표지판과 테이블이 크게 그려졌고 본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더 작다. 이것은 본인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초현실적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고, 현실에서의 자아가 위축되고 작아진 소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빼에로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덜 자란 아이의 몸에 덜 완성된 자아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표지판에는 횡단보도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삶에서의 비전을 상징한 것이다.

빼에로가 걸어온 길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도록 그려져 있는데, 단지 공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원근감만 표현한 것이다.



[작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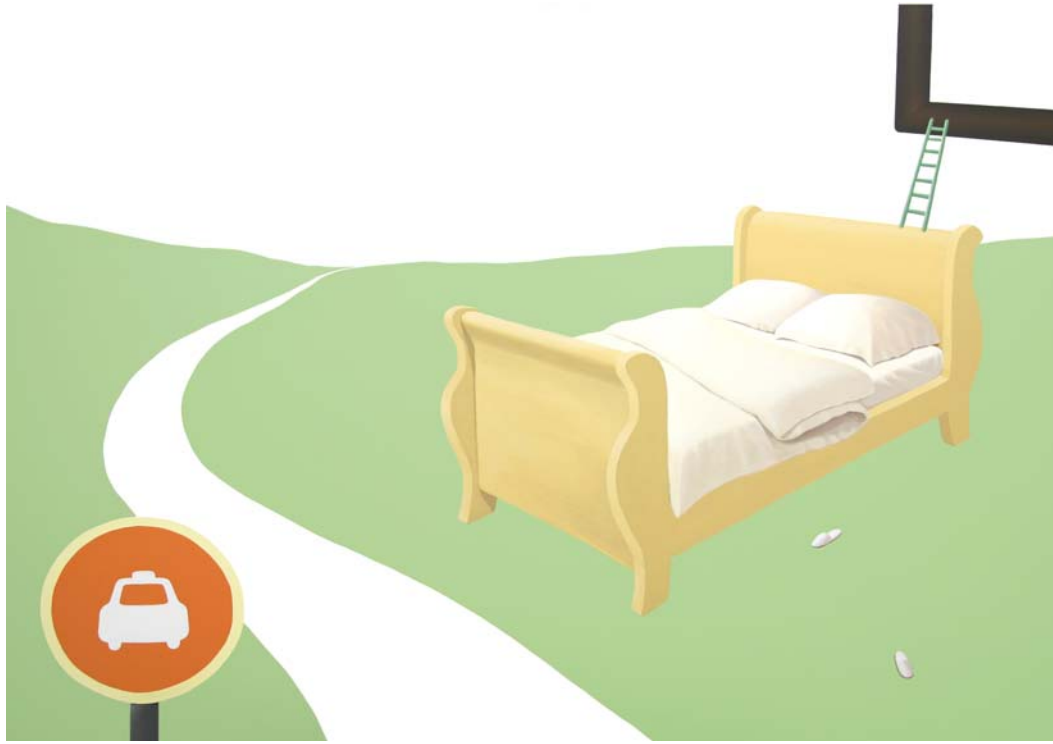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Acrylic on canvas 162.2x130.3cm 2007

### [작품3]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작품은 세상의 가치기준과 본인의 가치기준 사이에서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요즘의 사람들은 화려한 삶, 성공의 삶, 부와 명예 등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바라본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본인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꿈꾸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좇을 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보이는 것만을 좇아 살아가기에는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다.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한 것은 분명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비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되기 위해 조물주는 인간 각자에게 재능을 주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우선시되는 가치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함을 말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샌드위치, 사과, 쿠키봉투의 이미지는 세상의 가치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할 정도로 먹음직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색채는 원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였고 채도를 높여서 시각적으로 더욱 화려해 보이도록 하였다. 표현된 오브제 중 특히 사과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떠올릴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최초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작품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화면의 맨 앞에는 그것들을 등지고 있는 뺨에로의 모습이 보이는데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소신을 따라가는 자아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길이 아닌 곳에 뺨에로를 표현하였다.



[작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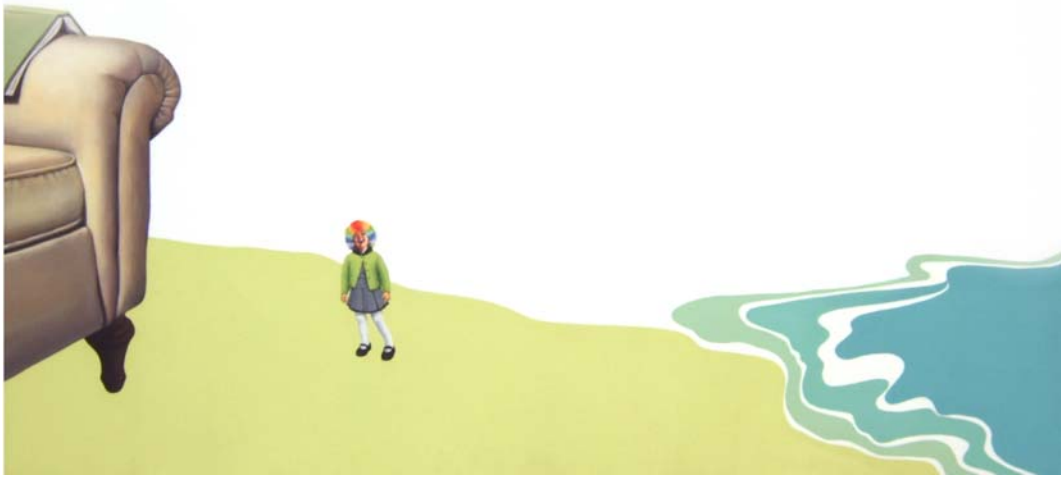
<네버랜드를 찾아서 IV> Acrylic on canvas 162.2x130.3cm 2007

#### [작품4] 네버랜드를 찾아서 IV

이 작품은 [작품2] 와 시리즈 작품으로 일상에서 떠나와 꿈꾸는 세계, 즉 네버랜드를 찾아서 떠나는 자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삶에서 자신이 계획하거나 뜻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이 맞을 때도 있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며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침대는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현실에 대한 안주함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못했던 자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위의 사다리과 액자는 본인이 꿈꾸는 세계를 상징한 것으로 모험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더 이상 빼어로는 보이지 않으며 벗겨진 슬리퍼만 놓여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난 자아의 흔적을 표현한 것이다.

침대와 액자, 슬리퍼는 표지판과 상반된 특징을 가지는 오브제이다. 그것을 안과 밖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현된 공간이 초현실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길과 액자, 흰 배경은 다른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작품5]

<월만한 물가 no.1> Acrylic on canvas 193.9x130.3cm 2006

### [작품5] 설만한 물가 no.1

현실의 삶에 지쳐 일탈을 꿈꾸고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자아가 여기에 있다. 이 작품은 구약성서의 시편 23:1-2절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도다.” 이다.

본인이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는 마음이 매우 지친 상태였고, 자유함을 갈망하며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여 그것을 해소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 이 성경 구절이 본인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고, 평안함과 자유함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본인이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위로가 더 깊숙하게 느껴지게 되었으며 시간이 흘러도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자아를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도 평안과 자유를 전하고자 하였다.

의자는 폭신함이 느껴지는 소파를 그렸으며 거대하게 표현했다. 쉼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육체와 영혼의 쉼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물가가 오른 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성경 구절의 '물가'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 웃고 있는 뺨에는 갈등을 극복하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음껏 기뻐하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의 구도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무대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것은 관객을 향해 말하고 있는 배우처럼 자아가 감상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의 배경은 흰 여백을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이는 자아가 현실을 초월하고 얻은 자유함이 고요하게 울리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초현실적인 공간을 극대화하고 공간의 시각적인 확장을 피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다.



[작품6]

<calling> Acrylic on canvas 112.1x145.5cm 2007

## [작품6] calling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과 재능은 모두 다른 것이다. 본인은 자아를 탐구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나가면서 소명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인생의 목적은 소명에 달려 있는 것이며 소명은 세상의 가치기준보다 훨씬 큰 가치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소명은 자아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는 안내자와 같으며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인의 소명은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품으려면 먼저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마음을 비우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같이 자아를 다스리고 성숙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져있는 영혼들의 벗이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스스로 이 작품을 보면서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자아가 나아가야 할 바를 확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본인의 꿈과 미래가 담겨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품을 살펴보면 커다란 육조는 마음의 그릇을 상징한 것이다. 육조는 원래 몸을 깨끗이 하는 도구이지만 여기에서는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을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보다 크고 넓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일상의 오브제 중 크기가 큰 육조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어두운 색의 수건은 때 묻은 마음을 모두 닦은 흔적을 표현한 것이다.

물가에 표현된 구도는 [작품5]의 구성을 따른 것으로 물은 하늘이 반사되고 육조의 물도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은 물과 하늘이 합하여 세상이 된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본인의 비전과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색의 하늘이며 이 또한 현실과는 다른 세계임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다.



[작품7]

<휴식을 위한 준비물> Acrylic on canvas 100x100cm 2007

## [작품7] 휴식을 위한 준비물

현실세계로부터 도피하고 싶다하더라도 현실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너머의 진리의 세계를 발견해 나가면서 현실의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바쁘게만 돌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누구나 휴식을 꿈꾸게 된다. 휴식을 얻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며 휴식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 또한 모두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휴식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을 본인과 연결 지어 표현한 것이다.

본인은 먼저 티타임을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중에 커피 한잔을 마시는 여유를 부리며 잠시 휴식을 청한다. 본인에게도 티타임은 일상의 일부분이며 휴식하는 시간으로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일상에서 즐겨 이용하는 브랜드의 커피이미지를 그려 넣었고, 이 브랜드가 본인만의 것이 되도록 글씨의 색채를 바꾸고 일부분을 감추어서 표현했다.

두 번째로 휴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의자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흔들의자를 떠올렸다. 앞뒤로 흔들거리는 의자에 몸을 싣고 있노라면 모든 상념으로부터 자유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므로 크기를 가장 작게, 그리고 맨 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오브제는 영혼에 휴식을 주는 성경이다. 사실 본인에게는 셋 중에서 이것이 휴식을 위한 최고의 조건이라 생각되었고, 그래서 가장 크게 표현하였으며 맨 아래에 두었다. 그것은 휴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휴식이 바탕이 되어야 육체의 휴식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지의 표현방법은 원래의 질감이 느껴지도록 거친 붓질로 묘사하였지만 거의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색채는 실제 성경 그대로 검정색을 사용하여 그림자가 없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작품8]

<내려놓음 I> Acrylic on canvas 120x120cm 2006



[작품9]

<내려놓음 II> Acrylic on canvas 120x120cm 2007



[작품10]

<내려놓음 III> Acrylic on canvas 97x130.3c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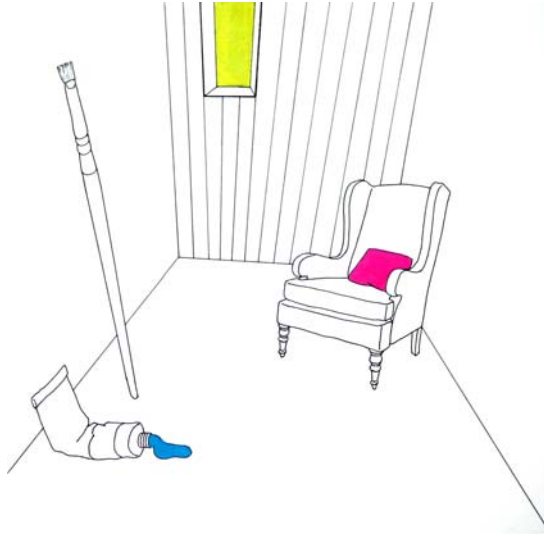
[작품8] 내려놓음 I

[작품9] 내려놓음 II

[작품10] 내려놓음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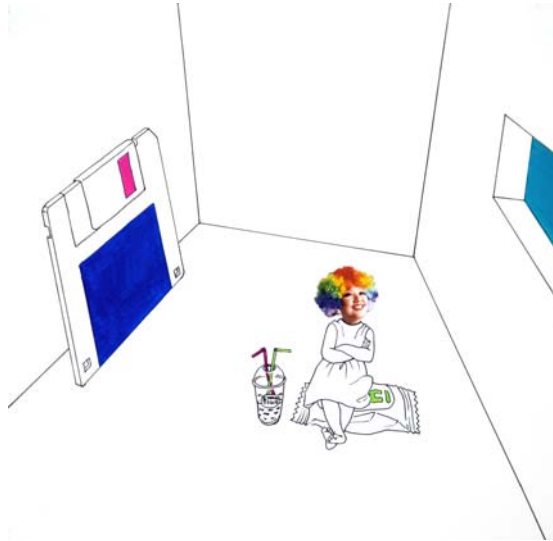
이 작품들은 시리즈로 제작된 것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8]과 [작품10]은 영혼이 자유로워져 평온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자아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억압되거나 상처받지 않고, 존재감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어떤 기준이나 욕심을 모두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작품8]은 일상의 물건들이 모두 정적인 상태로 놓여 있고, 단지 책장만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비워진 영혼에 무언가 따뜻하게 감싸며 그 영혼을 돌보는 느낌을 책장을 움직이게 하는 고요한 바람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안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은 내면을 상징하며 밖을 표현한 하늘은 외부세계를 상징한 것으로 자아를 둘러싼 안과 밖의 세계가 모두 잠잠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10]은 같은 맥락인데 좀 더 구체적인 자유함을 표현한 것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었다. 옷자락이 팔랑이며 주변의 모든 상황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시계의 모든 숫자가 아래로 떨어져 있다. 이것은 본인이 시간에 쫓기고 바쁘게 살아야하는 현실로부터 더 이상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함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일상의 오브제인 옷이 라인으로 표현된 것은 현실세계의 어떠한 것으로도 자아를 흔들거나 주저앉게 할 수 없으며 이미 그로부터 해방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의 오브제들은 모두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배경은 하늘색으로 된 공간이다. 이것은 [작품8]의 의미와 같이 자아의 안과 밖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고요함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작품8]과 [작품10]은 같은 내용이지만 시리즈인 [작품9]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9]는 내려놓지 못하여 생긴 갈등을 나타낸 것

으로 일상의 사물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특히 원색적이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오브제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는 자아가 회복되고 더 나은 모습이 되었다고 느꼈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금세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마음을 자꾸만 유혹하며 애써 찾아놓은 영혼의 자유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내면을 비우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약점을 구두로 상징하였다. 굳어진 습관처럼 좀처럼 변해지지 않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고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 혼란이 오는 것을 가만히 놓아둘 수 없기에 이 모든 상태를 멈추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사물들의 정적인 구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자아는 내면의 자유와 억압을 반복해나가면서 더 나은 자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나가며 만들어지는 것으로 [작품8], [작품9], [작품10]의 시리즈 작품은 인간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11]

<나를 자유롭게 만들다 no.1> Acrylic, pen on paper 25x25cm 2006



[작품11]

<나를 자유롭게 만들다 no.3> Acrylic, pen on paper 25x25cm 2006



[작품11]

<나를 자유롭게 만들다> 전시 중 풍경

### [작품11] 나를 자유롭게 만들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그 중 하나의 형태는 가상공간의 아바타를 이용한 것인데, 현실세계에서의 자신의 잠재된 욕구나 꿈 등을 그 안에 투영시킨다. 그러면서 자신을 닮은 아바타로부터 대리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작품11]은 그러한 아바타 놀이와 같이 가상의 공간에 자아를 끌어들었다. 어쩌면 본인의 모든 작품이 아바타 놀이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작품은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는 아바타의 집과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공간의 구획이 선으로 가볍게 표현됨으로써 현실의 공간과 다른 공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공간의 구조는 누군가에게 관찰되는 것처럼 구성하였고 공간에 꾸며진 오브제들은 일상에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각각의 작품마다 그날그날을 기록한 일기처럼 에피소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인의 삶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것들이다. 채색은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였는데, 일부분에만 사용하여 선적인 요소가 더욱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삐에로는 사진을 인쇄하여 붙인 것으로 아바타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현실이 아닌 상상의 공간에서 자아는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한 일처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며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인은 아바타 놀이와 같은 드로잉 작품을 계속해나가면서 스스로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했으며, 자아의 매일의 삶을 기록하고 표출함으로써 내면의 자유를 얻고자 한 것이다.

### Ⅲ. 결 론

예술은 인간의 내면에 깃들여 있는 잠재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나게 하고 개인의 영혼과 세계를 연결시키며 교감하게 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예술을 통해 자아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들을 토로하고 그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아의 존재감을 발견하는 행위이며 미래의 긍정적인 삶을 위해 치러야하는 과정인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자아의 발견과 내면의 표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상의 공간속에 자아를 반영하였으며, 일상의 오브제를 변형 및 상징화하여 자아의 내면에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현실세계를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현실과는 또 다른 자아의 이미지를 출현시켜 일탈을 구체화시키고 감정 및 생각을 이입하였다. 그럼으로써 본인이 자각하지 못했던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면의 갈등을 치유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자아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소통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조형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작품의 지난 과정들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었다. 특히 본인이 표현한 공간의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공간의 구조 및 표현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과 초현실적인 느낌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의 작품에서 배경의 공간을 외부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내부 공간도 포함시켜 시도해 볼 것이다. 그리고 초현실적인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브제를 선택하고 그것들의 낯선 결합과 배치를 고려해 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와 자아 내면의 표출이 더욱 구체화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욱 명확해 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아를 둘러싼 외부세계와의 소통의 폭도 넓어질 것을 바란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은 앞으로도 자아의 주체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 심상에 더욱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표현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윤현섭, 「추상미술과 지(知)의 자아」, 인간사랑, 1997.
- 르네위그,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79.
- 김윤희, 「예술·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0.
- 수지개블릭, 「르네 마그리트」, 시공사, 2000
- 진중권, 「미학오디세이2」, 휴머니스트, 2003.
-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2004.
- 
- 이지영, 「발투스(Balthus:1908-2001)의 “소녀상”에 표현된 자기반영성  
(自己反影性)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오영임, 「창작행위를 통한 심리적 자가 치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1998.
- 하세경, 「현대 미술에서 만나는 미술의 치유적 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 권효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바타를 통한 자아정체성 고찰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제17집, 2006.
- 배은숙, 「일상적 공간 속에서의 자아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  
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 우정윤, 「초현실주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2.
- 이경임, 「샘 프란시스(Sam Francis)회화의 여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  
교 대학원,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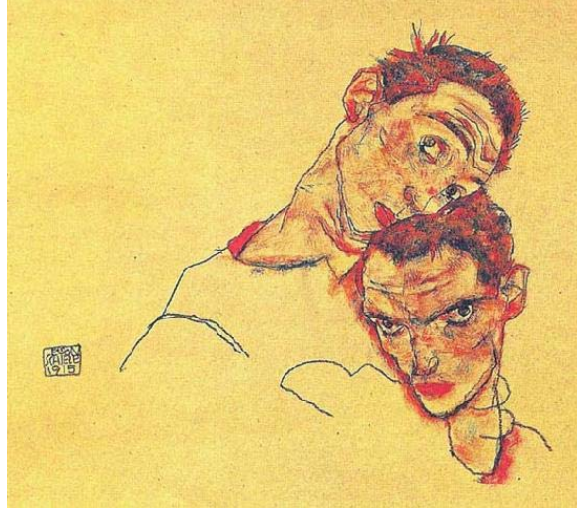
<http://krdic.naver.com> (네이버국어사전)

## 참 고 도 판



(도판1)

신디 셔먼, <무제 #153>, 1985



(도판2)

에곤 쉴레, <이중 자화상>, 1915



(도판3)

프랜시스 베이컨, <자화상>, 1973



(도판4)

발투스, <황금기>,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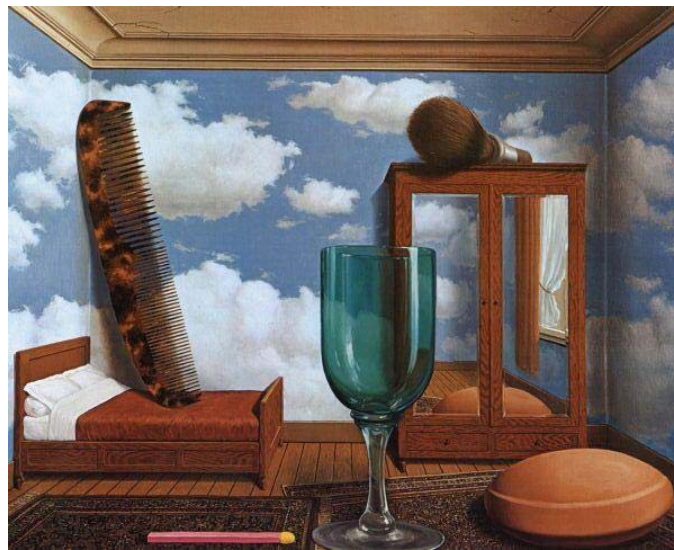
(도판5)

르네 마그리트, <사람의 아들>, 1964



(도판6)

르네 마그리트, <표절>, 1960



(도판7)

르네 마그리트, <개인적 가치>, 1951-1952

# ABSTRACT

## Study on expressions in the reality and the sur-reality

- Centering on the author's works -

Cho, Soo Hyun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has researched into the contents and formative properties of the present author's works produced between 2006 and 2007.

Art is a collection of products reflecting the life of human beings and a medium connecting the inner world of human beings to the external world. The present author aims to find out art's contact points with the world and establish the image of herself through visual art, based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human beings, while exploring the identity of herself and expressing her inner world.

First of all, this thesis suggests as theoretical backgrounds a general concept of self and an expression of self in the fine arts, on the assumption that visual expressions start from self. It is also described that how the present author expresses herself is demonstrated in her works and is the repeated process in which the

self is formed. Moreover, it is contended that expressions in the fine arts are a way to overcome the conflicts felt in the reality, cure for the inner self, and restore positive attitudes about the self; in this way, the expressions can be a channel connecting the inner world of self to the external world. Keeping what has been said in mind, the present author creates her works expressing the ideal world imagined by herself. The subject matters of the works and their significance are derived from the Bible and symbolize objects found in an everyday life.

The followings are serious considerations about the present author's works. The author tries to project her inner world into the spaces of her external world. Then,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 author's works and the depaysement of Rene Magritte in order to analyze the formative properties of the present author works. The former expresses imaginary spaces drawn from the combination of daily spaces and objects, and the latter estranges daily objects so as to brings sur-realistic effects on them. Explanations are also made about the significance and expression of margins in the formation of spaces and about the symbolic significance and expression of colors reflecting the inner self. Lastly, analyses are made of the present author's works, with a focus on individual episodes, contents, and forms.

Human beings have properly used the fine arts for the purpose of leading a richer life. The spirit, consciousness, and concepts expressed in the fine arts are all real, comprise the laws of the life of human beings, and are the vestiges of their existence. Therefore,

the fine arts can directly act on the mental images of human beings and reveal the existence hidden within the images as well.

The present author makes efforts to identify the invisible vestiges of self with the help of visual expressions. This thesis has helped her concretely establish her own thoughts and find ways to produce more developmental works in the future.